

## 복식유물의 보존을 위한 제안 -밀창군 조복의 복제를 중심으로-

채옥자<sup>†</sup> · 박지선\* · 박성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 Proposition for Conservation of Traditional Costumes -Mainly on the Replication of Milchanggun's Jobok

Okja Chae<sup>†</sup> · Chisun Park\* · Sungsil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Yongin University

\*\*Dept. of Traditional Costumes, Dankook University

(2005. 8. 9. 접수)

#### Abstract

We proposed that the replicas be made as an alternative to achieve such reciprocal goals as the saf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ostume relics and socio-educational realizations through exhibitions, etc., A replication was categorized for its purpose into a restoral replication: a work based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color and shapes as they were originally made and a current state replication : a production based on a minute record of the relics as they are excavated Then, we reported the reproduction process from the excavation to the exhibition on the excavated traditional costumes of Milchanggun's Jobok. The purpose of a replication of relics is to record the relics experiencing the change resulted from the inevitable degeneration over time as organic cultural assets together with the substitution exhibition of relics and academic researches and so on.

**Key words:** Traditional costumes, Conservation, Replication, Restoration, Jobok; 복식유물, 보존, 복제, 복원, 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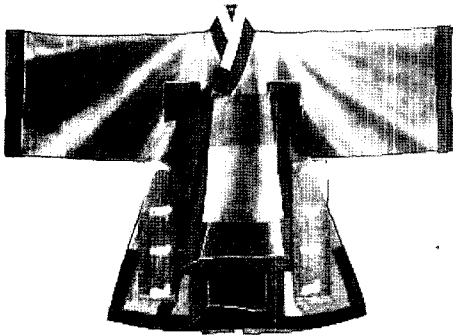
## I. 서 론

###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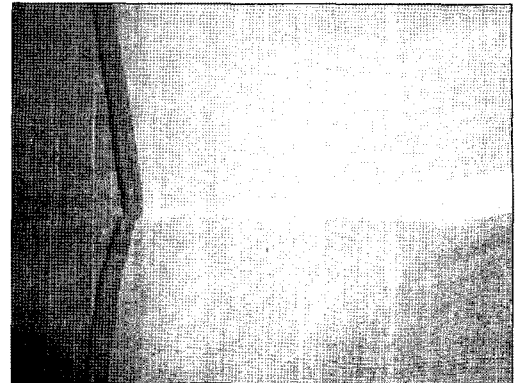
복식 관련 유물은 그 생존 방식에 따라 크게 전세 유물과 출토유물로 나눌 수 있다. 전세유물은 그것이 만들어져 사용 또는 감상되어진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으로 본래의 형태와 색 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반면 출토유물은 오랜 기간 동안 땅 속에 묻혀진 상태에서 발굴된 것으로 그 구성 재질에 따라 색과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많은 퇴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래유물과 출토유물 모두 보다 안전한 보존(保全)을 위해서 여러 보존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보존처리는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유물의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손상·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저지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일련의 과정이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한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kafka@hanmail.net



<그림 1> 고려대 박물관 소장 '조복'  
(자료출처: 복식류명품도록, 고려대학교)



<그림 2> 파계사 소장 '염조대왕의 도포'  
(중요민속자료 제220호)

다는 것이다. 처리과정을 거친 유물은 박물관이나 소장처에 전시·보관되는데 이 중 특히 복식 유물의 전시는 전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변색과 재질의 퇴화 등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장시간 동안 전시된 유물은 전시로 인한 색의 변화와 손상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또 대부분의 복식유물이 전시장의 벽면과 지지물을 이용해 전시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특성상 <그림 2>와 같이 소매부분의 골선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복식 유물은 구성 성분이 유기물로서 다른 재질의 유물에 비해 보존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퇴화의 속도가 빨라 그 생존기간이 짧다. 따라서 복식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시환경의 조성 and 최대한 전시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유물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공유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보존을 위해 사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유물과 거의 유사한 것을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유물의 안전한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물의 복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시 등을 통한 사회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보존으로 복제품의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복원과 복제의 개념을 보존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둘째, 실제 출토된 복식유물을 대상으로 복제품의 목적에 따른 복제 방법을 결정한다. 셋째, 복제목적에 따른 두 가지의 복제방법 즉, 현상복제와 복원복제의 과정을 실제 유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제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연구는 두 가지 복제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복식 문화재의 보존과 전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복원과 복제의 개념

유물에 대한 보존의 개념과 이론은 그동안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안되고 채택되어왔다. 그것의 특징은 기존의 명문화된 각종 현장의 수정과 함께 세분화된 문화재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과 함께 문화재의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물리적 형태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기술에 대한 존중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수정, 2003). 복식유물의 보존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물의 보존(Conservation)은 그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간접적인 보존방법과 직접적인 보존법 그리고 대안적 보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인 보존의 방법은 전시장이나 보관장소의 온도, 조명, 생물학적 관리 등의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여 더 이상의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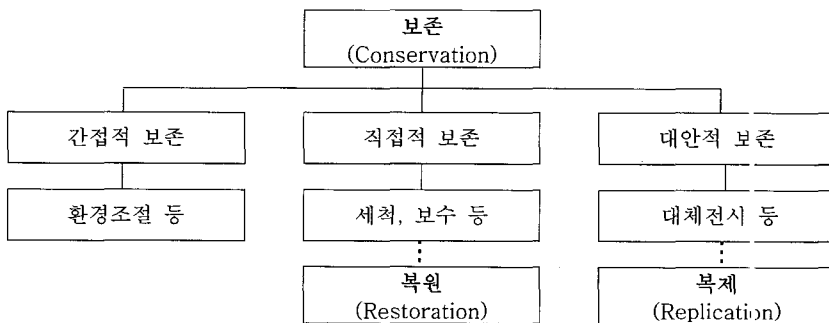
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입의 정도가 가장 낮다. 직접적인 보존법은 오염제거를 위한 세척과 훼손된 부위를 지지물이나 보강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등의 보수와 복원적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대안적 보존법이란 복제품을 이용한 대체 전시 등으로 유물의 사회적 효용가치의 실현과 유물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존방법을 일컫는다.

보존이란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복원, 복제, 재현 등의 것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그 개념상 보존의 하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 중 복원(Restoration)에 대해서 ‘세계 보존과학회’는 1984년 채택한 보존가와 복원가의 작업규정에서 유물을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겸, 2003). 이것은 전통기법과 현대 과학을 응용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유물의 손상 없이 실시해야 한다(김병호, 1993). 복원의 대상은 손상되고 훼손된 유물이다.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작업에서는 그 용어의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복원의 개념에서 원형은 크게 유물이 사용·감상되어지던 당시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과 후대에 변화·변형된 모습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보존개념에서는 원형을 단순히 제작당시의 형태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재가 과거로부터 전해오고 후대에 전달되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시간의 흐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이수정, 2003). 따라서 복원은 행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과학적 지식과 사적인 고찰,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의 인식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유물을 다루는 일이므로 깊은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복제(Repl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 제작하는 것, 또는 제작된 것 자체’(국립국어연구원, 1999)나 ‘예술작품 따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일’(장삼식, 1996)을 나타낸다. 대안적 보존의 방법으로서 복식유물 복제는 현재 상태의 유물이 제작되어 사용될 당시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없듯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물로는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착용이나 사용 등의 과정을 통해 유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유물의 전시로 인한 변색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물은 최대한 안정화 시켜 보관하고 복제품을 대체 전시하여 유물의 보존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특히 복식유물과 같이 그 구성 재질이 유기물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복제품의 제작이 보존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복제는 단순히 재현된 것의 의미를 넘어 많은 박물관이 생기며 전시대상물이 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양적인 문제의 해결과 유물의 손상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보존으로 이것을 복제문화재(김식, 1995)라 하기도 한다. 이 작업은 복제의 목적에 따라 대상유물의 시점이 달라지며 이것에 따라 복제를 다시 복원복제와 현상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복원복제(Restoral Replication)란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유물이 제작된 당시의 형태와 색상, 분체법 등을 고증해 본래의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복제(Current Replication)란 원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고 변화된 상태 즉 현재 유물의 상태와 같도록 재현하는 것으로 총해에 의한 결손 부분과 산화에 의한 갈변현상, 곰팡이 등에 의해 얼룩진 부분까지도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원유물의 구성 재질, 색상, 손상상태 등



<그림 3> 복식유물 보존의 분류

을 면밀히 관찰, 분석한 후에 원 유물에 사용된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박지선, 2003).

유물의 복제는 문화자산으로서 사회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체전시와 함께 유기물 문화재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필연적인 퇴화와 학술적 연구조사 등으로 인한 변화를 겪는 유물에 대한 기록, 전통 기술의 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복제의 목적인식과 대상유물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적·현상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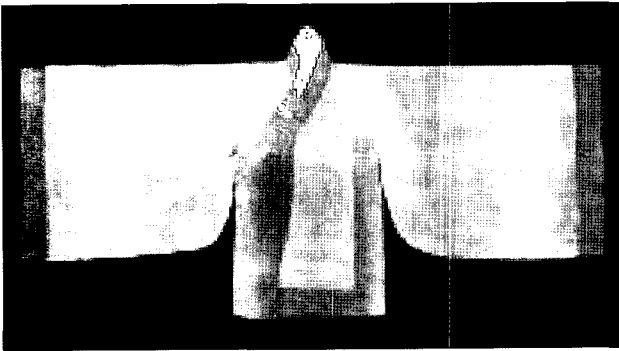
## 2. 조복의 복제

### 1) 대상유물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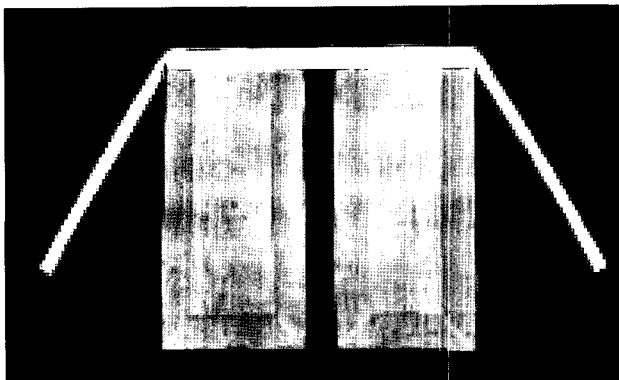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 유물은 1999년 12월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된 전주이씨 密昌君(1677-1746)의 분묘이장 중에 발굴된 유물 중 補空衣로 사용된 朝服일습 중 일부인 衣와 裳이다(박성실, 2004). 묘주인 밀

창군은 선조의 7남인 仁城君(1588-1628)의 증손으로 휘는 穢, 자는 君實, 호는 兩忘齋이며 化善君의 계자로 생부는 化山君이다.

밀창군의 복식류는 단령, 흉배, 중치막 등 총 47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조복은 의, 상, 폐슬, 후수, 대대를 모두 갖춘 일습의 형태로 출토되었다. 현재의 많은 출토복식 유물 중 조복의 출토는 총 5건으로 末期의 자료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유물들은 복식사적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밀창군의 조복<그림 4-1, 4-2>은 모든 부속품을 갖추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문중에서 묘주인 밀창군이 조복을 착용한 모습의 채색된 영정<그림 5>을 보관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회화 자료는 복원복제의 가장 큰 과제인 색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착용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물의 복식사적 가치가 크고 연구와 교육을 위해 전시해 공개해야 하



<그림 4-1> 밀창군의 조복-의



<그림 4-2> 밀창군의 조복-상



<그림 5> 조복을 착용한 밀창군의 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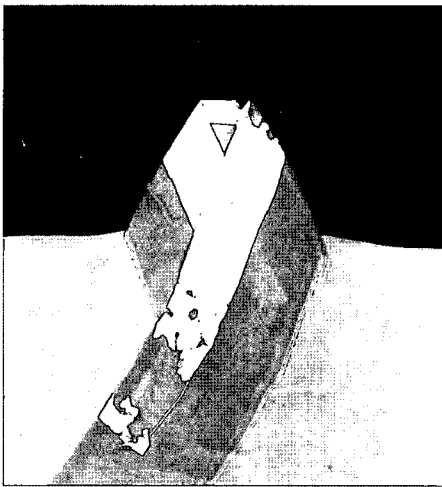
지만 전시로 인한 유물의 변색과 약화된 직물의 손상이 예상되므로 큰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유물의 상태와 복식 이외의 고증자료를 갖추고 있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유물 복제의 시행이 타당함으로 사료되고 복원 복제와 현상복제의 대상으로 적합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 대상유물의 보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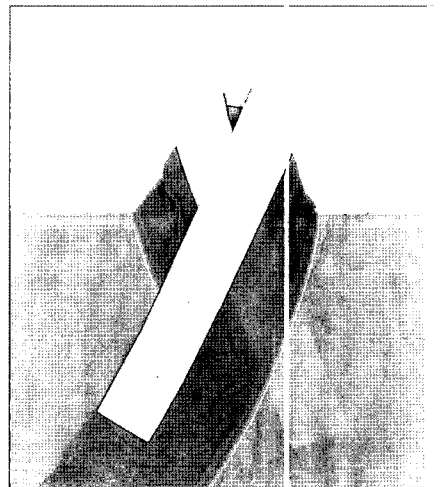
본 유물은 발굴 책임자인 박성실(2004)에 의하면 발굴 당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치와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수거 상태로 질소 환경에 밀폐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학술적 연구(안춘순, 2003)와 전시를 하기 위한 보존처리가 실시되었다.

본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세척 전 유물의 손상 정도와 오염 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토복식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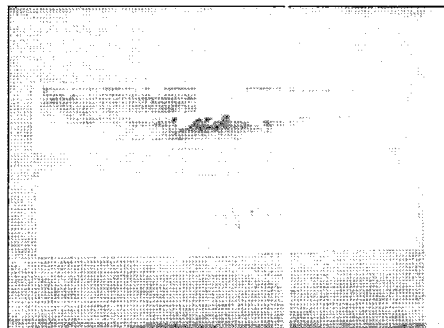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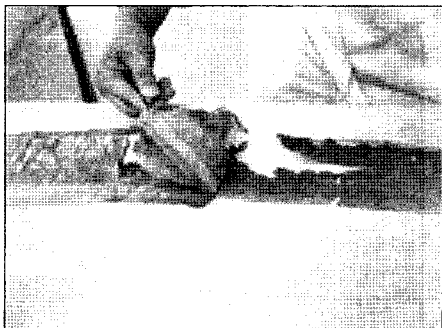
의 세척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습식세척을 실시하였다. 세척 후 유물의 손상 부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기초로 보수를 실시하였다. 유물의 일부가 탈락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동정으로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양호한 상태였다. 동정은 손질이 잘 된 세밀한 모시와 한지를 심지로 하여 구성되어있다. <그림 6>과 같이 많은 부분이 탈락되었으나 직물의 상태가 매우 취약해 바느질을 이용한 보수는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정을 옷에서 분리하여 탈락된 부분을 유사한 두께의 한지를 천연 염색하여 결손 부위를 보완해 주는 복원수리를 시행하였다(그림 7, 8). 그 과정은 우선 손상된 동정을 옷에서 분리하였다. 그리고 심지로 이용된 한지와 본체인 모시를 각각 분리해 염류수를 분사하여 습식세척을 실시하였다. 분리된 모시는 가슴한 상태에서



<그림 6> 동정-보존처리 전



<그림 7> 동정-보존처리 후



<그림 8> 동정의 해체 및 보수 과정

경위사를 정리하고 투명한 아크릴 필름을 이용하여 한지와 모시의 형태를 맞추어 정리하였다. 결손 부위를 채워주기 위해 직물과 같이 긴 섬유로 되어 보존성이 우수하고 유연한 닥지를 오리나무 등으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결손 부위는 유사한 직물로 채우는 것이 원칙이나 이 동정의 경우 섬유가 매우 취약하여 보강 직물로 인한 손상이 우려되므로 동정보다 두께가 얇고 유연한 닥지를 선택하여 보강하였다. 접착은 소맥전분풀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회화류 유물의 처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맥 즉 밀가루에서 전분을 제거하여 만든 풀이다(박지선, 2005). 이와 같이 결손 부위를 메워 주는 것은 결손 부위의 계속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미적으로도 안정적인 형태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접 방법을 이용한 직물 유물의 보수는 사용되는 보강 직물이나 종이 그리고 풀의 종류와 농도 등에 따라 오히려 유물에 스트레스를 주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선택과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 3. 복제의 과정

유물의 복제는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그 목적과 효용 등을 고려하여 복제의 방법을 결정한다. 대체전시 등의 목적을 가진 현상복제인가 아니면 연구와 고증 등의 목적을 가진 복원복제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목적에 따른 유물의 복제방법이 결정된 이후 복제 과정은 크게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가장 먼저 대상 유물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복제품의 형태와 구성법을 결정함은 물론 유물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후 유물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치면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 등의 구성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복제의 질과 내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 제작되어 유물에 사용된 직물은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물의 복제에 사용될 직물은 그 문양과 두께 등 물성을 유물과 거의 같도록 재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규모 산업화된 체계에서는 전통적 제직법에 의한 직물의 태를 가진 것을 얻기 힘들고 유물과 거의 유사하게 문양과 조직을 재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 직물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은 준비된 직물을 각각의 복제의 목적에 맞도록 염색한다. 염색된 직물은 복식의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침선전문가에 의해 제작을 실시하며 제작된 복식은 보색 등의 후처리를 거쳐 유물과 유사하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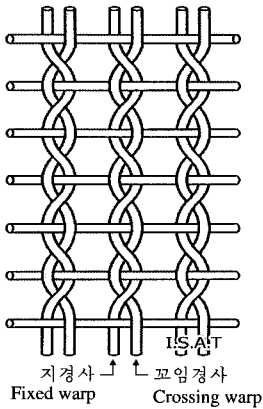
#### 1) 유물 기초 조사와 직물의 재현

본 조복의 형태적 특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衣는 無紋紗와 細紗로 구성된 겹옷의 형태로 가선된 부분이 다소 넓은 편이며 겨드랑이 부분이 네모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달려있다. 衣의 고름의 길이가 국말의 조복보다 짧고 좁다. 裳은 前3, 後4의 규정대로 제작되었으며 홉겹의 무문사로 이루어졌으며 밑단에 가선된 부분까지 주름이 잡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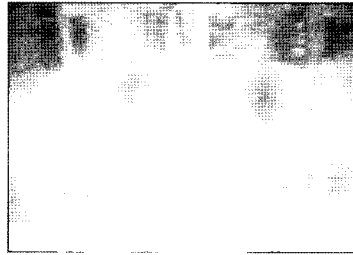
본 조복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5가지로 이중 유물의 衣와 裳은 무문의 사직물, 衣의 안감으로는 매우 얇은 세주가 사용되었다. 그 밖에 衣의 동정으로 섬세한 모시가 사용되었으며 의와 상의 가선부분의 緣은 삼죽항과, 그리고 裳의 말기를 이루는 명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조복의 전체를 구성하는 주된 직물은 無紋紗이다(그림 10). 이것은 <그림 9>과 같이 2경 꼬임 사조직으로만 제직된 무늬가 없는 사직물로서 素紗, 銀條紗 등으로 불리며(심연옥, 2002) 이러한

<표 1> 밀항군 조복의 부분별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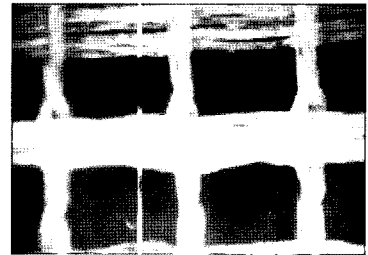
| 종 류 | 부 분    | 치 수(cm) | 종 류 | 부 분  | 치 수(cm) |
|-----|--------|---------|-----|------|---------|
| 衣   | 뒷길이    | 98.5    | 裳   | 가 로  | 99      |
|     | 품(B/4) | 29      |     | 세 로  | 89      |
|     | 화 장    | 119     |     | 끈 길이 | 79      |
|     | 진 동    | 25      |     | 끈 나비 | 4.8     |
|     | 고 대    | 20      |     |      |         |
|     | 소매넓이   | 74.5    |     |      |         |
|     | 緣넓이    | 11-12   |     |      |         |



<그림 9> 紗-조직도



<그림 10>  
은조사 조직(유물, ×80)



<그림 11>  
은조사 조직(복제품, ×80)

<표 2> 밀창군 조복 구성 직물의 조사

| 직물명칭 | 종 류 | 직 조 | 유 물                             |         | 복원직물                            |         |
|------|-----|-----|---------------------------------|---------|---------------------------------|---------|
|      |     |     | 밀 도<br>(경사×위사/cm <sup>2</sup> ) | 두 께(mm) | 밀 도<br>(경사×위사/cm <sup>2</sup> ) | 두 께(mm) |
| 은조사  | 견   | 사조직 | 30×14                           | 0.12    | 30×14                           | 0.21    |
| 모 시  | 모시  | 평 직 | 27×25                           | 0.14    | 33×29                           | 0.14    |
| 세 주  | 견   | 평 직 | 33×31                           | -       | 53×43                           | -       |
| 항 라  | 견   | 여 직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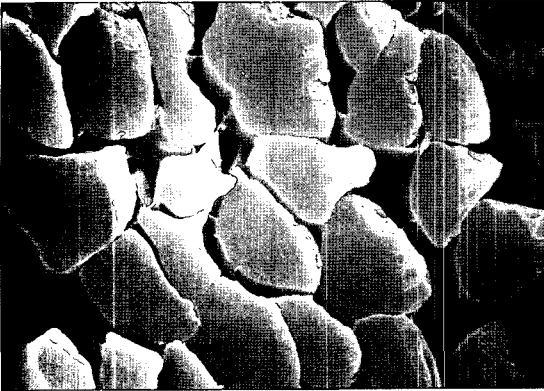
직물로 된 유물로는 월정사에 소장된 생명주로 명명된 세조대의 저고리가 있다(민길자, 2000). 이 직물은 현재 직조되어 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은조사’로 명명되어 상용되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익조직의 직물이 아닌 평직의 직물이다. 따라서 복원을 위한 직물은 유물에 근거하여 수제로 제작하였다. 직물의 정확한 재현을 위해 직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현미경을 통한 조사와 밀도측정(KS K 0511), 두께 측정(KS K 0506), 측색(분광측색계, JS-555, COLOR TECHNO SYSTEM CORPORATION을 이용해 시료를 각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CIE 표색계에 따라 표시하였고 색 변화는 색차 $\Delta E = [(\Delta L)^2 + (\Delta a)^2 + (\Delta b)^2]^{1/2}$ 로 비교) 등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복제에 필요한 직물을 직조하였으며 <그림 11> 이것은 유물과 밀도와 실의 두께 등을 비교할 때 거의 같아 현미경을 이용한 미시적인 비교에서는 거의 같은 직물로 판단될 만큼 유사하였다. 그러나 육안으로 비교할 때 유물에서 나타나는 직물의 느낌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물이 오랜 기간동안 경위사가 밀착되어 생긴 위사의 굴곡으로 위사의 각 열이 다르게 반사해 인접한 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10).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유물은 위사 2행 간격으로 갈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재현을 위해 제작한 직물은 <그림 11> 이러한 위사의 요철이 생기지 않아 육안으로 관찰할 때 유물의 직물과 다소 다른 이질감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침 등의 방법을 시행하였으나 유물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유물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생긴 흔적인 유물 구성 직물의 질감과 새로 직조한 직물의 생경한 시각적인 차이 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처리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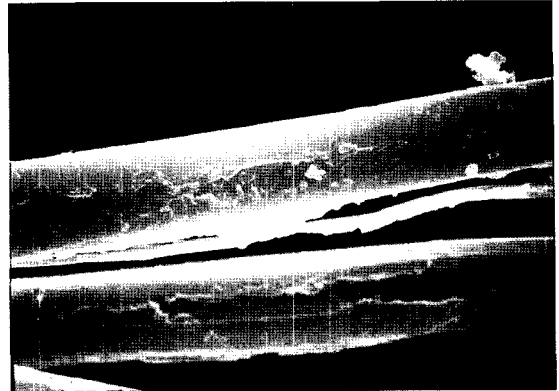
2) 색상의 결정과 직물의 염색

복제품의 색상은 복제의 목적에 따라 현상복제를 위한 것과 복원복제를 위한 두 가지 색상의 실현으로 실행하였다.

현상복제를 위한 직물의 색상은 출토품인 유물의 현재 색상과 같은 갈변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을 실시하였다. 유물의 색상이 변색과 오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염색만을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오염·변색된 부분은 이후 채색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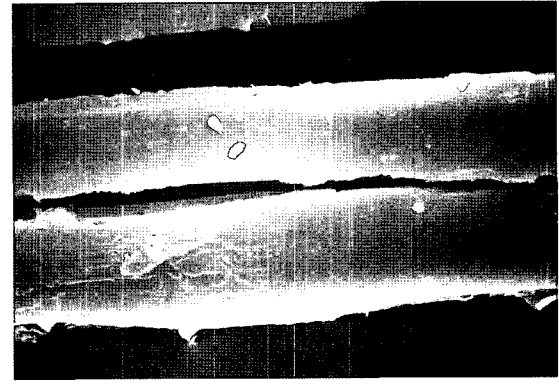
<그림 12> 유물 은조사 SEM(단면, ×2000)



<그림 13> 유물 은조사 SEM(측면, ×2000)



<그림 14> 복제 은조사 SEM(단면, ×2000)



<그림 15> 복제 은조사 SEM(측면, ×1500)

로 표현하였다. 또한 말기와 동정 등의 직물도 소재의 직물이 변색된 색으로 조사되어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하였다.

복원복제를 위해서 우선 조복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색상을 결정하였다. 조복의 衣와 裳의 중심적인 색상은 문헌에 따라 赤羅衣(국조오례의, 대한예전), 赤綃衣(경국대전), 紅綃衣(경모궁의궤), 다홍생수갑사(의화군 발기)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박성실, 2004). 적색계열의 천연염색 재료는 꼭두서니, 홍화, 소복 등이 사용되며 염색재료에 따라 그 색의 느낌과 색이 다르므로 염색재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안춘순(2003)은 앞의 연구에서 본 조복유물 중 裳을 대상으로 GC-MS 분석결과 가장 높은 검출량을 보인 demethyl phthalate가 선행연구(Ahn & Obendorf, 2003)에서 얻어진 꼭두서니의 변질생성물 일 것으로 연구 조사하여 상의 염색에 사용된 염료가 꼭두서니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밀창군의 조복 착장상태의 초상화<그림

5>는 여러 가지 붉은 색 중 그 붉은 정도와 색감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붉은 색을 천연염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적인 염색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물의 보호와 전시에 의한 변퇴색 등을 고려하여 1차로 화학염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염색을 하고 이후 꼭두서니로 염색하였다. 또한 衣와 裳의 緣 부분은 아청색이나 玄색으로 길 부분과 같이 화학염색과 쪽과 먹을 이용한 염색으로 표현하였다.

조복유물과 현상복제한 조복의 각 부분별 색을 측색한 결과 衣와 裳의 선단과 길의 색차 값인  $\Delta E$ 가 각각 1.75, 3.80, 1.98, 0.7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정과 말기의  $\Delta E$ 가 각각 10.04와 9.53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염색하여 준비한 조복의 색은 유물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염색을 하지 않고 사용하여 황변한 동정과 허리말기의 색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밀창군 조복과 현상복제 조복의 측색결과

|   |    | 밀창군의 조복 |       |       | 현상복제 조복 |      |       |
|---|----|---------|-------|-------|---------|------|-------|
|   |    | L       | a     | b     | L       | a    | b     |
| 의 | 선단 | 38.31   | 3.52  | 12.58 | 37.43   | 4.18 | 13.95 |
|   | 길  | 50.97   | 3.77  | 15.80 | 52.08   | 3.92 | 19.43 |
|   | 동정 | 76.13   | -0.09 | 9.54  | 65.35   | 1.37 | 8.38  |
| 상 | 선단 | 53.96   | 5.59  | 16.47 | 52.42   | 4.91 | 15.40 |
|   | 길  | 69.34   | 3.23  | 11.13 | 68.67   | 3.16 | 11.51 |
|   | 말기 | 65.09   | 2.12  | 17.66 | 56.63   | 0.50 | 13.57 |

<표 5> 밀창군 영정과 복원복제 조복의 측색결과

|   |    | 밀창군의 영정 |       |       | 복원복제 조복 |       |       |
|---|----|---------|-------|-------|---------|-------|-------|
|   |    | L       | a     | b     | L       | a     | b     |
| 의 | 선단 | 21.77   | 0.04  | 1.75  | 26.43   | 13.48 | 4.38  |
|   | 길  | 45.22   | 27.20 | 13.08 | 42.60   | 30.50 | 11.70 |
|   | 선  | 45.59   | 27.66 | 13.44 | 45.24   | 27.43 | 10.87 |
| 상 | 길  | 45.01   | 27.62 | 13.31 | 33.52   | 23.50 | 9.23  |

3) 조복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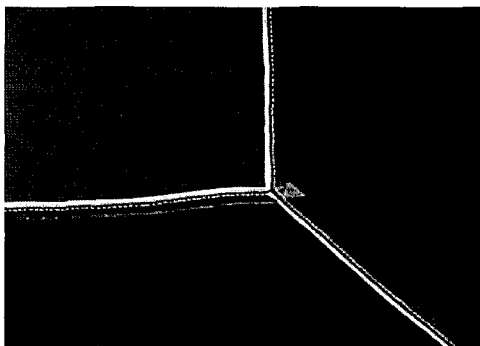
앞서 조사된 복식의 구성적·형태적 특성을 토대로 전통복식 제작 전문가에 의한 제작을 실시하였다. 조복의 제작은 일반적인 복식의 제작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직물이 정련이 되지 않은 생사이며 직조도 매우 성글어서 제단과 바느질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징적인 부분인 선단<그림 17>은 먼저 소재의 향락로 가선을 선단감에 시침하여 제작하여 마련해 두고 길과 소매, 상의 가장자리에 위치를 잡아 시침한다. 그리고 가선과 선단의 끝에서 흰색의 실로 상침하여 마무리하였다.

복식유물의 복제에 있어서 의복의 제작과정은 전통적인 제작 과정을 직접 재현함으로써 전통기술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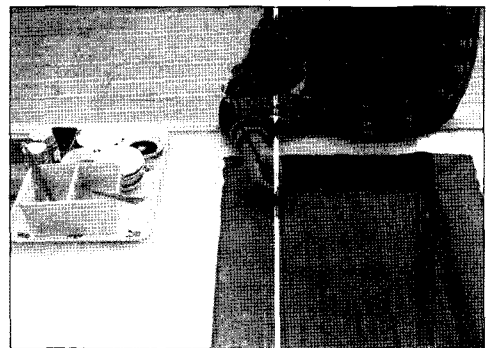
한 실증적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침선과정은 복제품 제작의 매우 핵심적인 과정이므로 유물의 구성적 특징과 전통 복식의 침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통 기술의 보존과 재현을 위해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4) 후처리 및 완성

현상 복제된 조복은 기본적인 염색만을 실시한 것으로 유물이 부분적으로 변퇴색 된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어 관람객이나 관찰자로 하여금 복제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유물과 같이 얼룩 등의 변퇴색 된 부분을 채색



<그림 17> 조복의 선단 부분



<그림 18> 보색 처리과정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오래되어 고정된 주름 등도 최대한 유물과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후처리 작업은 현상복제의 경우에 복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직물의 성질과 채색 작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그림 18).

위의 과정으로 완성된 현상복제된 조복<그림 19>과 복원복제된 조복<그림 20>은 유물과 함께 전시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복제품은 반드시 복제품임을 밝히는 기록이나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박물관 등에 전시할 경우에도 복제품임을 밝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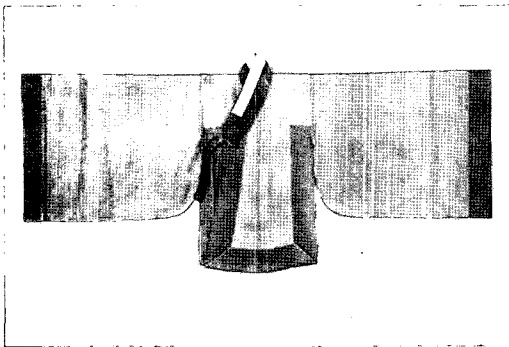
### 5) 검증

제작된 복원복제품과 현상복제품은 제작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과정은 제작의도에 따라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고증과 참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복식 제작과정은 각 분야, 즉 침선, 염색, 보색 등의 전문가 협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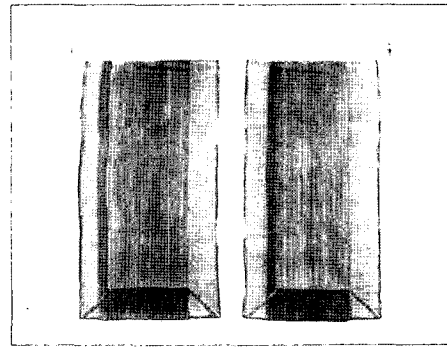
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작자나 처리자의 임의적인 고증과 검증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복제품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유물 대체품과 복원 복제품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또한 대체전시를 위한 현상복제품은 관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III. 결 론

본 연구는 복식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유물의 사회 교육적 가치의 발현, 퇴화하는 유물의 기록, 그리고 전통 기술의 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복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제 제작해 제안하였다. 복원과 복제에 대한 논의와 작업들은 건축 문화재나 석재 또는 금속문화재, 그리고 근래의 서화류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복식관련 문화재에 대한 그와 같은 논의와 작업은 거의 없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



<그림 19> 밀창군 조복의 현상복제품



<그림 20> 밀창군 조복의 복원복제품

류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와 비교해 실용품으로서 그 문화적 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복식문화재는 선조의 생활문화와 그 속에 내재한 철학을 이해하고 실용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대인적인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더욱 심조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두 복제의 방법 즉 복원복제와 현상복제는 모두 일정한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 될 때 오히려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대하는 문화재의 보존과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은 유물의 복제 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를 추출하였다.

#### 1. 철저한 고증의 원칙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은 고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증은 유물, 문헌기록, 그림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증거(evidence)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김봉건, 1999). 유추나 추정에 의한 시행은 현재 뿐 아니라 후손에게 유물에 대한 잘못된 기록의 전달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 복제목적의 확인을 통해 이에 맞는 물리적, 구성적 상태의 확인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3. 충분한 시간과 보존성이 우수한 재료를 확보하고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예행하여 예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기능적 측면에서의 완벽한 복제가 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완성된 복제품의 학술적 가치와 기능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며 변퇴색 등으로 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의 복제란 연구, 감상, 기록의 과정으로서 과거의 조약하고 무근거한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존과 복원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재의 복원과 과학적 고증, 전문인의 양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원유물의 보존처리와 함께 병행될 때에 가능하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1990). *부식류명령도록*.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경. (2003). 서양에서의 유물-복제의 의미와 현황. *단호문화연구*, 7, 241-252.
- 김병호. (1993). *문화재의 수리, 복원. 문화재 과학적 보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봉건. (1999). 불국사 복원에 관한 고찰. *사찰조경연구* 7, 1-16.
- 김식. (1995). 인간과 예술-문화재 보존수리수복에 대하여. *현대경제와 사회*, 18. 자료검색일 2005, 자료출처 <http://hopia.net/rics/jes/jes18.htm#6>
- 민길자. (2000).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소고. *한국복식*, 22, 87-88.
- 박지선. (2003). 한국 서화유물 모사의 역사와 현황. *단호문화연구* 7, 157-175.
- 박지선. (2005). *섬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2005 보존과학 기초연수교육*.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석주선. (1985). 衣.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심연옥. (2000).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 안춘순. (2003). 마포 밀창군 표 출토복식유물의 섬유 외 물질의 추출분석. *복식문화연구*, 11(6), 902-912.
- 이수정. (2003). 현대 보존이론의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 6, 200-214.
- 장삼식. (1996). *한한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Ahn, C. S., & Obendorf, S. K. (2003). Toward the study of dyes in archaeological textiles: Analysis of alizarin and its degradation products. *Textile Research Journal*, 74(11), 949-954.